

유니트리, 높은 밸류를 뒷받침할 산업 수요가 필요



Hana China Weekly | 2026.8.21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유니트리(688826.CH): 상장 첫날 주가 급등,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 유니트리는 8/19 상장 첫날 종가 845위안으로 공모가 대비 460% 급등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우세. Financial Times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기 시장 성장성은 높지만, 현재 제품의 경제성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 Reuters는 유니트리의 주가 급등에 휴머노이드 산업의 높은 성장 기대뿐 아니라 중국 IPO 공급 부족과 정책 수혜 업종으로의 유동성 쏠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매출 상당 부분이 정부 지원 훈련센터형 판매에서 발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하이프 사이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 확대. 향후 실제 공장에 대규모 배치되지 못할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제기.

알리바바(9988.HK/BABA.US): 2분기 실적 발표, 순이익 급감

- 8/20 알리바바는 2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2,690억위안(YoY +9%)으로 컨센서스 0.2% 상회, 다만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106억위안(YoY -74%)으로 급감, 컨센서스 53.4% 하회. AI 인프라·즉시배송 투자 확대로 Capex가 677억위안(YoY +75%)까지 확대되고 지분 처분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Non-GAAP 순이익도 207억위안(YoY -38%)으로 감소. 반면 알리바바 클라우드 외부 매출이 YoY +45%로 성장했고 AI 관련 제품 매출은 12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 클라우드 EBITA 마진도 12%로 개선. 즉시배송(중국 킥커머스) 매출은 +45% 급증한 반면 중국 이커머스 매출은 YoY -8% 감소. 잉여현금흐름은 -446.7억 위안으로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샤오미(1810.HK): 2Q26 스마트폰 사업부 GPM 컨센서스 상회

- 2Q26 매출 1,089억위안(YoY -6%)으로 컨센서스 소폭 상회, 조정순이익 62억위안(YoY -43%)으로 컨센서스 -2% 하회.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 서프라이즈로 8/19 샤오미 주가는 +5% 상승. 2Q26 스마트폰 매출은 421억위안으로 YoY -7.5% 감소, GPM은 8.5%로 YoY -3%p 하락. 스마트폰 사업부 GPM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준. 메모리 등 핵심 부품 가격 상승 부담을 ASP 인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평가. 2Q26 신사업부 매출은 249억위안으로 YoY +17% 증가, 영업손실은 -26억위안으로 1Q26(-31억위안) 대비 축소. 신사업부 GPM은 19.2%로 QoQ -0.9%p 하락하며 시장 컨센서스 하회. 이는 SU7 Ultra의 인도 비중 감소, 핵심 부품 가격 상승, AI 사업 관련 비용 증가에 기인.

AI/테크

알리바바(9988.HK/BABA.US): 2분기 실적 발표, 순이익 급감

- 8/20 알리바바는 2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2,690억위안(YoY +9%)으로 컨센서스 0.2% 상회, 다만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106억위안(YoY -74%)으로 급감, 컨센서스 53.4% 하회. AI 인프라·즉시배송 투자 확대로 Capex가 677억위안(YoY +75%)까지 확대되고 지분 처분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Non-GAAP 순이익도 207억위안(YoY -38%)으로 감소. 반면 알리바바 클라우드 외부 매출이 YoY +45%로 성장했고 AI 관련 제품 매출은 12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 클라우드 EBITA 마진도 12%로 개선. 즉시배송(중국 쿡커머스) 매출은 +45% 급증한 반면 중국 이커머스 매출은 YoY -8% 감소. 잉여현금흐름은 -446.7억 위안으로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 8/14 산하 엔트그룹이 알리페이 AI 어시스턴트 '아바오'의 하모니OS 버전 테스트를 개시. 결제·생활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얹어 슈퍼앱 트래픽을 수익화하려는 행보로, Qwen-클라우드·핀테크로 이어지는 AI 생태계 확장의 연장선으로 판단.
- 8/18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한국 3번째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고 6종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출시. 2번째 센터 개소 1년 만의 증설로, 3년간 AI와 클라우드에 530억달러를 투입하는 글로벌 확장 계획의 일환. 이번 확장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는 30개 리전, 104개 가용영역으로 확대되었음. 모델 경쟁이 해외 인프라·수익화 경쟁으로 옮겨가는 국면에서 알리바바가 클라우드와 에이전트를 앞세워 아시아 AI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판단.

바이두(9888.HK/BIDU.US): AI 투자 확대로 순이익 큰 폭으로 감소

- 8/18 2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313억위안(YoY -4%)으로 컨센서스 0.8% 하회,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23억위안(YoY -68%)으로 컨센서스 12.7% 하회. 광고 둔화와 AI 선투자에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 다만 핵심 AI 신사업 매출이 125억위안(YoY +25%)으로 일반 사업 매출의 50%를 차지하며 2개 분기 연속 절반을 넘어서는 모습. AI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73억위안(YoY +50%)으로 이 중 GPU 클라우드가 YoY +283%로 4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 광고 기반 인터넷 기업에서 AI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국면으로, 단기 이익은 압박받으나 AI 매출 비중 확대가 부각되는 모습.

메이탄(3690.HK): AI 에이전트 오류, 실질적 경영 교란

- 왕푸중 핵심 로컬커머스 CEO가 공개 강연에서 올해 2~3월 전사 AI 에이전트 도입 1단계를 회고하며, 당시 하루 청구액이 1,000만위안에 달하고 통제 불능의 보안 권한과 각종 오류가 실제 경영을 교란했다고 언급. 이후 조직 정비를 거쳐 7월 전사 AI 에이전트 플랫폼 CatPaw를 가동(9만명·에이전트 3만개)했으나, AI 전환 초기 비용·부작용을 경영진이 직접 인정한 발언에 투심이 악화.

Z.AI(2513.HK): 신모델 서프라이즈 부재로 투심 악화

- GLM-5.3가 신모델 서프라이즈 부재로 투심이 악화되며 8/18 장중 -17% 급락했으나 오후장 낙폭을 축소하며 13% 하락 마감. 8/14 공개한 GLM-5.3는 베이스 모델이 전작 GLM-5.2와 동일하고 후훈련만으로 코딩 성능을 약 50% 끌어올린 버전으로 기저 혁신 부재가 실망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
- 딥시크가 V4 Pro를 공개하고(에이전트 능력 강화, 일부 벤치마크에서 클로드 계열 상회 주장) 바이트댄스 PC 버전 Doubao가 에이전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등 AI 에이전트 시장 경쟁 심화 우려가 재부각되며, 관련주에 차익 실현 물량이 집중되는 흐름.

콰이쇼우(1024.HK): 매출, 순이익 대체로 컨센서스 부합

- 8/19 2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은 355.4억위안(YoY +1.4%)으로 컨센서스 부합, 조정 순이익은 39.1억위안(YoY -30.3%)으로 컨센서스 2.9% 상회. AI 투자 확대로 R&D 비용이 45.8억위안(YoY +34.7%)으로 늘고 매출총이익률이 55.7%에서 51.6%로 하락. 월평균 이용자는 7.97억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 콰이쇼우는 단기 수익성 저하에도 AI에 집중하는 전략이 부각되는 모습.

바이트댄스(비상장): 미국영화협회와 AI 저작권 보호 협약 체결

- 8/19 미국영화협회(MPA)와 AI 저작권 보호 협약을 체결. 앞서 2월 MPA가 바이트댄스의 Seedance 모델이 저작권 보호 영화 캐릭터·배우 이미지를 생성한다며 침해 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이후 신규 모델에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를 강화. AI 영상·이미지 생성 모델의 저작권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 행보로 평가.

AI 인프라**중지쉬창(300308.SZ): 광모듈 소재 기업 인수**

- 8/13 방열·전자파 차폐 소재 기업 중석과기(300684.SZ) 지분 10.47%를 17.47억위안에 인수한다고 공시. 800G, 1.6T 고급 광모듈 출하 확대에 따른 전력밀도 상승으로 방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 방열·EMI 차폐 소재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고속 광모듈 사업과의 공급망과 기술 시너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판단.

기가디바이스(603986.SH):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 8/18 2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73.8억위안(YoY +229.2%)으로 컨센서스 24.5% 상회, 순이익은 54.0억위안(YoY +1,483.0%)으로 급증, 컨센서스 16.1% 상회. 지난해 연간 순이익(16.5억)의 4배를 상반기 만에 기록. 메모리 업황 호조로 제품 가격과 출하량이 동반 상승하며 본업 수익성이 개선됐고, 여기에 보유 지분 평가이익이 더해진 결과. 다만 이를 제외한 비경상 순이익은 상반기 48.5억위안(YoY +791.0%)으로, 순이익 급증분에는 일회성 평가이익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

CATL

상장 국가

중국 본토/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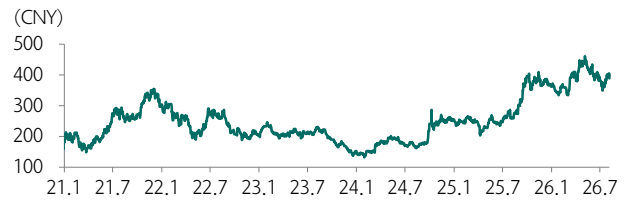
섹터

전기 부품 및 장비

시가총액(조원)

359.3

최근 주가 추이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 8/15 CATL은 2025년 말까지 핵심 사업장의 탄소중립을 달성했으며, 처음으로 2035년 밸류체인 전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CATL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 탄소배출량 중 80% 이상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며, 공급망의 총 탄소배출량은 CATL 자체 핵심 사업장 배출량의 5배 이상이라고 설명. 이를 해결하기 위해 CATL은 2022년 도입한 CCMS(Carbon Chain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광물 채굴, 원재료 정제, 소재 합성, 부품 제조까지 아우르는 전 공급망 탄소 데이터 추적 플랫폼을 구축.

호주 Quinbrook BESS 프로젝트에 참여

- 8/14 호주 Quinbrook의 Supernode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프로젝트가 Stage 2 상업운전 개시, Stage 3을 위한 4.69억호주달러 규모의 금융조달도 완료. Supernode는 호주 브리즈번 인근에 위치한 호주 최대 운영 BESS 캠퍼스, 향후 총 계획 용량 3GWh 이상. CATL이 Stage 1~3 전 단계 핵심 ESS 공급업체로 참여. CATL은 Stage 1~2에 EnerC Plus 시스템을 공급했으며, Stage 3에는 TENER S 시스템을 공급해 Supernode 캠퍼스 전반에 일관된 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CATL은 LTSA(Long-Term Service Agreement, 장기서비스계약)를 통해 운영을 지원.

이차전지

이차전지: 중국 주요 배터리 업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시험생산 추진

- 중국 주요 배터리 업체들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시험생산 및 차량 검증 목표로 개발 가속화 중. BYD, CATL, Geely에 이어 CALB, Gotion, Farasis 등 주요 업체 대부분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시험생산을 추진 중. BYD는 전고체 관련 특허 6건 공개 후 2027년 시험생산 계획, CATL도 2027년 시험생산 계획 재확인. Geely는 500Wh/kg급 전고체 배터리 2027년 시험생산 및 실제 차량 검증 목표. CALB는 2027년 소규모 차량 검증 후 2030~32년 생산 확대, Gotion은 350Wh/kg급 개발해 2029~30년 상용 양산 목표. Farasis도 2027년 차량 검증 후 2030년 본격 양산 목표. EVE Energy는 황화물계 전고체 개발 중이며 2026년 350Wh/kg에서 2028년 1,000Wh/L급으로 고도화 계획.

사원전기

상장 국가

중국 본토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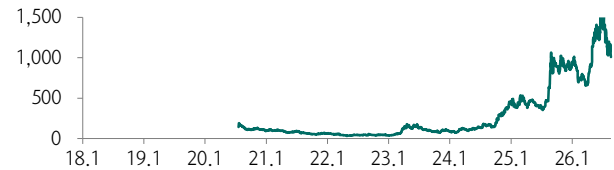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29.6

최근 주가 추이

(CNY)



환손실 영향으로 순이익 잠정치 소폭 하회

- 사원전기 2Q26 매출은 62억위안(YoY +18%)으로 잠정실적에 부합, 순이익은 9억위안(YoY +8%)으로 잠정실적을 -2.5% 하회. 순이익이 부진했던 이유는 위안화 절상 영향으로 1H26 8,506만위안의 환손실이 발생했기 때문. 2Q26 GPM은 31.6%로 YoY 1.0%p 하락, 이는 마진율이 낮은 ESS(10.5%) 사업의 매출 비중 확대, 수익성이 높은 해외 매출 비중 축소 영향. 사업부문별로는 1H26 개폐기/변압기 매출이 YoY +23%/+13%, ESS/EPC(설비통합) YoY +231%/+38% 고성장. ESS 사업부 GPM은 10.5%로 개폐기(39%)와 변압기(36%)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YoY +4.2%p 개선되며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음.

해외 매출 비중 축소는 일시적, 신규 수주는 견조

- 1H26 해외 매출은 32억위안으로 YoY +11% 증가, 해외 매출 비중 1H25 34%에서 1H26 29%로 축소. 2Q26 해외 매출 비중 축소는 프로젝트별 제품 인도 일정과 미국-이란 분쟁에 따른 일부 중동 지역 주문의 납품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 다만, 현재 수주 흐름은 견조. 1H26 계약부채는 38억위안으로 YoY +49% 증가, 신규 수주 역시 높은 증가세를 유지. 풍부한 국내외 수주잔고가 향후 실적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특히 2H26에는 해외 수주의 인도가 가속화되면서 해외 매출 비중 회복과 함께 전사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

CAPA 확대와 해외 수주가 이끌 중장기 성장

- 사원전기는 견조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도 추진 중. 2026년 6월 각각 6억위안과 4.8억위안을 투자해 개폐기와 변압기 생산능력 확대 계획 발표, 7월에는 4억위안 증자를 통해 슈퍼커패시터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 공시. 글로벌 고압 전력기기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대와 해외 고마진 수주 인도 가속화가 향후 실적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 주가는 현재 12MF P/E 34배 수준에서 거래 중이며, 이는 역사적 PER 밴드 중상단 수준. 단기 주가 상승을 견인할 추가 촉매는 제한적,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

에너지

에너지: 2030년까지 LNG 수입 2억톤, 천연가스 저장 비중 13%으로 확대

- 8/17 중국은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고,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 2030년까지 LNG 연간 수입·인수 능력을 2억톤으로 확대, 2030년까지 천연가스 저장 능력을 중국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13% 이상으로 확대, 2030년까지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연간 수입 능력을 1,140억㎥로 확대할 계획

샤오미

상장 국가

홍콩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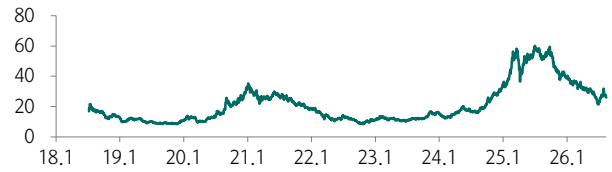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26.7

최근 주가 추이

(HKD)



2Q26 스마트폰 사업부 GPM 서프라이즈

- 2Q26 매출 1,089억위안(YoY -6%)으로 컨센서스 소폭 상회, 조정순이익 62억위안(YoY -43%)으로 컨센서스 -2% 하회.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 서프라이즈로 8/19 샤오미 주가는 +5% 상승. 샤오미 경영진은 메모리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4Q26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및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스마트폰 GPM 개선을 기대. 샤오미는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절반 이상이 200달러 미만 제품으로 구성돼 글로벌 Top 5 업체 중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높은 상황.
- 2Q26 스마트폰 매출은 421억위안으로 YoY -7.5% 감소, GPM은 8.5%로 YoY -3%p 하락. 스마트폰 사업부 GPM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준. 메모리 등 핵심 부품 가격 상승 부담을 ASP 인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평가. 스마트폰 출하량은 3,120만대로 YoY -26.5% 감소했으나 ASP는 1,351위안으로 YoY +26% 상승하며 최고치 기록.

신사업부 GPM 19.2%로 시장 컨센서스 하회, 전기차 모멘텀 둔화

- 2Q26 신사업부 매출은 249억위안으로 YoY +17% 증가, 영업손실은 -26억위안으로 1Q26(-31억위안) 대비 축소. 신사업부 GPM은 19.2%로 QoQ -0.9%p 하락하며 시장 컨센서스 하회. 이는 SU7 Ultra의 인도 비중 감소, 핵심 부품 가격 상승, AI 사업 관련 비용 증가에 기인. 2Q26 전기차 판매량은 10.4만대로 YoY +28% 증가, ASP는 22.9만위안으로 YoY -9.6%/QoQ 2.5% 하락. 샤오미는 2027년 유럽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 샤오미 EV의 단기 판매 모멘텀은 다소 둔화. 7월 인도량은 3.1만대로 YoY +2.7%, MoM -10.0%를 기록했으며, SU7 판매 둔화 및 신차 출시를 앞둔 제품 전환기 영향이 주요 원인. 다만 9월 Sky Nomad N90/N70 출시가 예정돼 있어 신차 효과에 따른 판매 회복 여부에 주목.

샤오미 로봇 WRC에서 대중에게 공개 예정, 차세대 XRing 칩 공개 예정

- 샤오미 로봇은 2026 세계로봇대회(WRC)에서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 샤오미 로봇은 약 1.7m의 풀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이며 사람·자동차·홈 통합 생태계와 연계해 스마트공장, 스마트 모빌리티 및 가정 등의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 샤오미는 자체 개발한 XRing O1 칩을 탑재한 3개단말 제품의 누적 출하량이 이미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힘. 또한, 차세대 샤오미 XRing 칩도 곧 공개될 예정. 샤오미 경영진은 AI가 아직 수익화 단계가 아니라 투자 단계이며 이를 당장 수익화하는 데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언급.

전기차

중국 전기차: 2030년 중국 전기차 유럽 시장 점유율 29% 전망

- 8/14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내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0만대 감소(YoY -20%), 이는 세계 4위 자동차 시장인 일본의 같은 기간 전체 신차 등록 대수와 맞먹는 규모. 반면, 동기간 중국 자동차 수출은 YoY +71% 증가. HSBC는 신차 출시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내수 자동차 수요가 안정되고 8월 말부터 9월 사이 회복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다만, V자형의 빠른 회복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중국 브랜드는 유럽 전기차 출하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함. Counterpoint는 2030년 중국 브랜드가 유럽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20% 이상, 전기차 시장에서는 29%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리오토(LI.US): 자체 클라우드 추론칩 개발 검토

- 8/14 리오토는 자체 클라우드 추론칩 개발을 검토 중. 해당 칩은 리오토의 자율주행칩과 동일한 데이터플로우 아키텍처를 사용할 예정이며,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 AI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으로 GPU를 이용해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처리하지만, 일부 데이터센터는 별도의 클라우드 전용 추론칩도 사용. 업계 관계자들은 차량용 칩에서 사용하던 데이터플로우 아키텍처를 클라우드로 확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 한 가지 방법은 차량용 NPU(AI 프로세서)의 컴퓨팅 설계를 재활용하고 여러 AI 연산 다이를 하나로 패키징하는 것. 여기에 HBM과 고속 인터커넥트를 추가하면 더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추론칩을 만들 수 있음.
- 리오토는 지난 5월 자체 개발한 Mach M100 자율주행칩을 공식 공개. 5nm 차량용 공정을 적용하고 칩당 1,280 TOPS의 연산성능을 제공. 현재 신형 Li L9-L8-L6에 양산 적용되고 있으며, 듀얼칩 구성에서는 총 2,560 TOPS의 연산성능을 제공. 리오토는 7/13 Xinchuang Zhihe Technology라는 신규 회사를 설립했으며, 사업 범위에는 집적회로 칩 설계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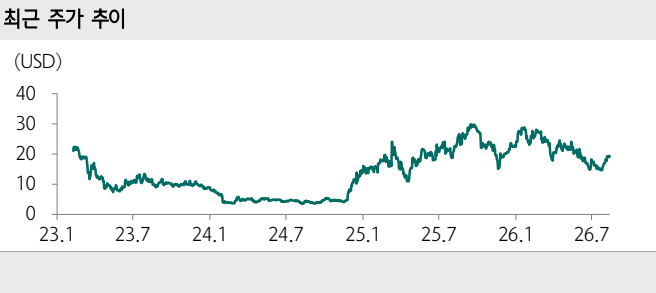
유니트리

상장 첫날 주가 급등,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 유니트리는 8/19 상장 첫날 종가 845위안으로 공모가 대비 460% 급등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우세. Financial Times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기 시장 성장성은 높지만, 현재 제품의 경제성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 유니트리는 공모가 기준으로 2026E PSR 27배에 상장됐으며, 상장 첫날 급등 이후 PSR은 150배를 상회해 테슬라의 13배 대비 크게 높은 수준. 현 밸류에이션을 테슬라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가격 기준 로봇 판매량이 약 9배 증가해야 한다는 분석.
- Reuters는 유니트리의 주가 급등에 휴머노이드 산업의 높은 성장 기대뿐 아니라 중국 IPO 공급 부족과 정책 수혜 업종으로의 유동성 쏠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현재 유니트리의 PER은 585배로 과장판 상장사의 평균 PER인 130배를 크게 상회. 또한, Nomura가 상장 당일 제시한 목표주가 370위안과 비교해도 현재 주가는 128% 높은 수준으로,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한 상황.

허사이

상장 국가
미국
섹터
자유소비재
시가총액(조원)
4.5
2Q26 매출/순이익 컨센서스 하회



- 허사이 2Q26 매출은 8.6억위안(YoY +22%)으로 컨센서스 소폭 하회, 순이익은 7,055만위안(YoY +60%)으로 컨센서스 9% 하회. ADAS용 라이다 출하량은 48.6만대로 YoY +60% 증가, 로봇용 라이다는 14만대로 YoY +193% 급증. 전사 GPM은 40.1%로 YoY -2.4%p, 이는 저마진 제품 매출 비중 확대에 기인. 영업이익은 220만위안으로 YoY -90% 감소, 이는 SGI 사업 관련 R&D 및 투자 확대에 기인. SGI 사업에서 처음으로 매출 4,494만위안이 발생했고 이는 로봇용 동력 모듈 판매에서 발생. 상용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회사는 2026년 연간 SGI 매출 가이드를 기존 1억위안에서 2~3억위안으로 상향, 2027년 BEP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경영진은 3Q26 매출 가이드를 11~11.5억위안으로 YoY +38-45% 증가 예고. 견조한 3Q26 매출 가이드스에도 8/18 ADR 주가는 -5% 하락, 대규모 CAPEX와 저가 제품 판매로 마진이 압박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중국 자동차 시장의 스마트카 전환은 허사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라이다 탑재 모델 비중 빠르게 확대 중. 특히 중국 15~20만위안 가격대 신차의 라이다 탑재율은 2025년 12%에서 1Q26 27%로 상승. 향후 수백만 대의 신차에 라이다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 사업 확대 추진 중. 허사이는 단순 자동차 부품 공급사를 넘어 기술기업으로 사업 영역 확장 계획.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하이프 사이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우려 확대

- 8/20 FT에 따르면,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매출 상당 부분이 정부 지원 훈련센터향 판매에서 발생. 훈련센터는 로봇 구매 후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원격 조종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다시 로봇 업체에 판매하는 구조. 시장은 이를 엔비디아 AI 데이터센터의 순환 금융과 유사한 구조로 평가. 이는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초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하이프 사이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 확대. 향후 실제 공장에 대규모 배치되지 못할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제기.
- 컨설팅업체 Interact Analysis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 전역에서 90개 이상의 훈련센터 설립. 주요 훈련센터들은 연간 1,000만건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 5분짜리 로봇 춤 동작의 훈련 데이터 가격이 최대 100만원(14만8,000달러)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 로봇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상업적 수요가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훈련센터가 중요한 매출원이 되고 있음. Leju Robot은 2025년 주력 휴머노이드 Kuavo 판매의 45%가 훈련센터향. 유비테크도 정부 지원 훈련센터에서 1.4억위안 규모 주문 확보. 유니트리는 2025년 1~9월 휴머노이드 매출의 약 75%가 대학 등 교육·연구 분야에서 발생했고 데이터 훈련센터향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휴머노이드 로봇: IDC,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글로벌 82% 차지

-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IDC의 미국 규제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미국 휴머노이드 판매량이 기존 기본 전망치보다 58%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 로봇 산업은 수많은 기업이 빠르게 등장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몇 년 전 중국 전기차 산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향후 업계 구조조정과 통합이 진행되면서 산업의 기술 기반이 강화되는 동시에 원가 측면의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로봇대회 개막, 실제 작업을 기반으로 설계된 경기 종목 확대

-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IDC의 미국 규제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미국 휴머노이드 판매량이 기존 기본 전망치보다 58%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8/19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로봇대회(WRC) 개막,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2,000개 이상의 전시품을 선보이고 150개 이상의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 시장의 관심은 이제 화제를 모으는 시연에서 실제 상용화 가능성으로 이동 중. 로봇이 얼마나 화려하게 움직이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8/22~26 World Humanoid Robot Games에서는 달리기·축구·격투뿐 아니라 실제 작업을 기반으로 설계된 경기 종목도 확대될 예정. 공장·호텔·가정 환경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포함, 포장·창고 작업, 산업 조립·자재 투입, 소매·사무실 서비스, 전기차 충전, 그리고 케이블 연결·공구 사용과 같은 정교한 작업이 포함됨.

체리자동차(9973.HK): 로봇 자회사 IPO 추진

- 8/19 체리자동차의 로봇 자회사 AiMOGA가 IPO를 추진 중. 2025년 설립된 AiMOGA는 현재까지 글로벌 60개 이상 국가·지역에 3,000대 이상의 로봇을 공급했으며, 이 중 해외 출하량이 2,000대로 약 67%를 차지. 2026년에는 중국 여러 도시에 교통관리·공공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경찰 로봇 110대를 배치했으며, 중동·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공공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 AiMOGA는 2027년 글로벌 로봇 출하량 1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Pony.ai(PONY.US): 2Q26 로보택시 매출 7배 급증

- 2Q26 포니 매출은 3,620만달러로 YoY +69% 증가해 컨센서스 10% 상회. 조정 순손실은 4,436만달러로 전년 동기(4,418만달러)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 1Q26(4,086만달러) 대비 소폭 확대. 로보택시 매출은 YoY +691% 급증, 전사 매출의 1/3 차지. 포니는 2026년 연간 로보택시 매출이 2025년의 3.5배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 해외에 4,000대 이상의 로보택시 배치할 계획. 경영진에 따르면, 현재 4,000대 차량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량이며, 실제 투입 시점은 각 지역의 허가 및 기타 규제 및 운영 요건에 따라 결정될 것. 포니의 2Q26 로보트럭 매출도 YoY +40% 증가. 포니는 향후 2~3년 내 중국에서 자율주행 대형트럭 500~1,000대를 배치하고, 2030년까지 무인 경형트럭 fleet을 10만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8/13 Pony AI와 Uber는 자율주행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유럽 전역에 Pony AI 로보택시 2,000대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라 밝힘. 기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유럽 4개 도시 추가 진출 예정, 양사는 중동 시장도 확대 추진. 현재 Pony AI, 중국 4개 1선 도시에서 유료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 중. 회사 측은 여러 시장에서 도시 단위 unit economics BEP 달성했다고 밝힘.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CXMT(688825.CH)	4.3	24.2	62.4	398.3	67.4	7,947.1	79.9	41,683.7	0.0	2026-08-28
기가디바이스(603986.CH)	(3.3)	28.5	41.1	159.3	27.2	418.2	64.1	509.5	57.1	2026-10-28
캠브리콘(688256.CH)	(7.5)	108.1	38.5	173.1	89.6	193.7	91.0	185.2	0.1	2026-10-19
해광정보(688041.CH)	(12.3)	124.3	17.6	56.4	46.6	81.6	64.5	81.7	(4.3)	2026-10-15
비렌테크(6082.HK)	(3.1)	-	4.8	132.0	251.0	적지	흑자	적지	(0.2)	2026-08-28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7.3)	-	(14.6)	177.7	135.4	적지	흑자	적지	(2.0)	2026-08-28
북방화창(002371.CH)	(3.5)	67.2	17.5	28.9	29.2	39.0	48.1	39.7	(0.1)	2026-08-25
AMEC(688012.CH)	(2.5)	88.2	14.2	34.8	35.9	86.1	33.4	139.3	(3.5)	2026-10-29
SMIC(0981.HK)	1.8	54.1	5.9	26.3	19.7	99.8	31.1	93.3	35.2	2026-11-13
JCET(600584.CH)	1.0	62.4	7.4	13.1	15.1	48.4	39.6	55.0	0.0	2026-10-23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6.0)	65.4	21.9	37.0	45.9	61.2	50.5	62.9	0.0	2026-08-28
빅토리아언트(300476.CH)	(5.9)	27.4	27.4	69.8	75.9	105.0	82.5	84.0	4.0	2026-08-27
중지쉬창(300308.CH)	(4.1)	33.4	61.6	162.6	79.1	196.9	84.7	176.6	0.0	2026-08-21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6.1)	20.8	31.2	63.0	37.3	73.0	33.5	71.0	1.8	2026-10-29
즈푸AI(2513.HK)	(19.4)	-	7.4	493.6	196.6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8-31
알리바바(BABA.US)	5.4	19.1	8.7	10.0	12.0	(13.4)	43.9	123.3	(1.6)	2026-11-25
텐센트(0700.HK)	2.6	13.2	18.8	9.9	9.4	2.7	6.1	24.0	(1.4)	2026-11-13
바이두(BIDU.US)	(11.3)	15.6	4.4	(1.0)	6.3	111.9	25.1	(12.7)	(16.2)	2026-11-18
레노버(0992.HK)	(11.5)	14.6	36.6	28.1	17.7	52.4	77.0	72.4	29.2	2026-11-16
샤오미(1810.HK)	8.4	23.1	9.2	(2.3)	17.9	(34.5)	24.1	(16.9)	(3.6)	2026-11-16
유비테크(9880.HK)	(10.6)	-	(5.0)	94.0	50.7	적지	흑자	적지	3.6	2026-08-28
BYD(1211.HK)	4.0	18.1	15.0	13.2	10.0	17.8	27.1	29.2	0.0	2026-08-28
CATL(300750.CH/3750.HK)	(2.3)	18.6	24.6	46.5	22.1	32.8	24.1	39.3	0.0	2026-10-20
양광전력(300274.CH)	(5.0)	15.5	26.2	13.6	20.1	7.7	24.0	15.1	0.0	2026-08-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4.2)	22.2	17.0	31.2	27.6	60.2	38.6	52.4	0.0	2026-08-28
허사이테크(HSAI.US)	2.3	33.2	6.0	42.6	41.3	19.6	67.4	26.6	(7.8)	2026-11-11
중천과기(600522.CH)	(7.6)	18.1	16.7	23.3	14.8	154.2	42.7	116.7	0.0	2026-08-27
사원전기(002028.CH)	4.3	32.8	23.1	31.4	30.5	32.5	38.1	31.4	0.1	2026-10-19
동방전기(600875.CH)	(4.6)	18.5	10.0	10.3	8.4	35.6	31.9	26.2	0.0	2026-08-25
평균	(3.6)	38.7	19.2	82.0	49.7	393.2	46.9	1,748.4	3.1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6년 8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